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1쪽(붙임 8쪽 포함)	
배포일시	2016. 4. 26.(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조영주(044-203-2621)		담당자	사무관 정유진(044-203-2612)	

궁궐 속 작은도서관 '집옥재[集玉齋]' 개관

- 고종황제의 서재인 '경복궁 집옥재'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
- 궁궐 활용을 위해 문체부,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협업, 독서와 휴식, 전시, 역사체험, 인문강좌, 공연 제공
- 4. 27. 문화가 있는 날, 개관식 및 토크콘서트 열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함께 경복궁 내 집옥재(集玉齋, 고종황제의 서재)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이번에 새롭게 개관하는 집옥재에 조선시대 역사, 인물, 문화 관련 도서와 원래 집옥재에 소장되었던 왕실자료의 영인본 등을 비치해 집옥재를 조선시대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한다. 또한 경복궁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집옥재를 통해 역사 속의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외부 시설은 그대로 보존, 독서·문화·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사례

1891년에 건립된 집옥재는 그동안 고종황제의 서재와 외국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어 왔다. 문체부는 협길당(協吉堂)과 팔우정(八隅亭)에 연결되어 있는 집옥재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업하여 집옥재를 작은 도서관으로, 팔우정을 북카페로 조성했다. 또한 문체부는 집옥재 내·외부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목재 서가와 열람대, 전시대를 제작하고 소장 도서를 비치하여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관과 관련하여 궁궐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운영을 담당한다. 고종황제 때 집옥재에 있던 서책(書冊)들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집옥재에서 유물 전시와 상설 왕실문화 강좌 등을 운영할 계

획이다. 이렇듯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독서와 문화,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옥재 - 작은도서관>



<팔우정 - 북카페>



외국인을 위한 우리 문학 번역본도 비치, 북카페는 궁중다과 판매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조선시대 관련 책 1,000여 권과 왕실자료의 영인본 350여 권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우리 문학책의 번역본(영어·중국어·일본어) 230여 권을 비치한다. 또한 팔우정(북카페)에서는 궁중다과와 외국에서 인기 있는 우리 문학책의 번역본을 판매하여 외국인들에게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함께 휴식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4월 27일 문화가 있는 날, 집옥재 작은도서관 개관식과 토크콘서트 열려

집옥재 작은도서관의 개관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인 4월 27일(수) 오후 3시, 경복궁 집옥재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개관 행사에서는 테이프커팅 등 개관식과 '문화가 있는 날, 궁을 읽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과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숙원 위원장, 문화융성위원회 표재순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 등 주요 인사와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 경복궁 관람객 등 20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이배용 원장이 집옥재의 역사를 소개하고, 역사 강사로 잘 알려진 설민석 씨가 특유의 입담으로 고종과 궁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 이어서 제2기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인 단국대 김원중 교수가

<격몽요결>의 내용과 함께 조선시대 책 읽기에 대한 교훈 등을 이야기한다. 토크콘서트는 궁과 어울리는 전통 춤 공연(전통무용, 부채춤)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문체부는 참석자 전원에게 조선시대의 대학자 이이 선생이 후학교육을 위해 마련한 정신 수양서이자, 현대인에게도 생활지침이 되는 <격몽요결(김원중 옮김)>을 나눠줄 계획이다.

문체부 박위진 문화기반정책관과 문화재청 김대현 문화재활용국장은 “집옥재 작은도서관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한번은 들러야 할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문화재의 외양만 구경하는 관광을 넘어서 역사 속의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관광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서원, 향교, 고택 등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집옥재 작은도서관 조성 개요
2. 집옥재 ‘미니 장서각’ 전시 품목
3. 집옥재 연중 인문강좌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정유진 사무관(☎ 044-203-2612) 또는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이지은 사무관(042-481-47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한국 대표 문화재이자 관광지인 경복궁 내 전각(집옥재)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 국내·외국인들에게 역사적인 전통문화공간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고종의 서재였던 집옥재(集玉齋)의 역사성을 살려, 독서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 및 가치 확산
- 특화 작은도서관 모형 홍보, 전국에 분야별 도서관 모형 확산

□ 추진방향

- (정체성) 고종의 서재였던 역사성을 감안하여 원형을 보존하며, 조선시대의 사회, 문화 관련 단행본으로 특성화 작은도서관 조성
- (협업) 장서 등 작은도서관 조성-문체부, 문화재 사용허가 및 운영-문화재청, 집옥재 소장유물 전시 및 인문강좌 운영-한국학중앙연구원
- (공간 활용) 문화재 관람과 작은도서관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성
 - (1단계) 집옥재를 서고로, 팔우정을 북 카페로 활용
 - (2단계) 협길당을 열람실로 활용 ※이용자 증가시 추가 개방

◦ 경복궁 집옥재 : 1891년 건축 / 고종황제의 서재, 어진봉안 및 공사접견
- 집옥재를 중심으로 서쪽-팔우정, 동쪽-협길당이 복도로 연결

□ 기대효과

- 특화 작은도서관 모형 홍보로 “독서-문화-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트렌드 확산
 - 경복궁 관람과 함께 독서와 휴식, 인문강좌, 공연까지 체험하는 등 유사 사례 확산, 국민 삶의 질 및 행복 증진

□ 공간조성

○ 작은도서관

- 집옥재에 어울리는 국산 목재와 한지로 디자인한 서가, 열람대 등을 제작, 배치하여, 궁궐의 아름다움과 멋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대청마루 및 앞마당

- 품격 있는 북 콘서트, 강연프로그램 등 궁과 어울리는 문화프로그램 제공
- ※ 예시 : 궁궐 속 인문학, 작가와의 만남, 외국관람객 대상 인기번역 도서 비치 등

□ 자료(도서) 구성 * 총 2,000여책

○ 조선시대 배경 자료(1,000여책)

- 조선시대 배경의 역사, 인물, 문학, 과학, 음악 등 대국민 이용에 적합한 자료 선정(국중 소장목록 1만권중 선별)

* 조선왕조실록,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동의보감, 조선의 음식을 만들다 등

○ 조선왕실 관련 자료 (700여책) /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규장각 기증

- 조선왕조 왕실의 소장 자료로서 읽기 쉬운 영인본 비치

* 고종문집, 정조 어찰첩, 조선 국왕과 선비, 일성록 등

○ 우수 한국문학 번역본 (200여책) / 한국문학번역원 기증

-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문학 중·영·일번역본 출판도서

* (중국어) 한국의 전통연희, 7년의 밤

* (영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 (일어) 한국복식문화사전, 식물들의 사생활 등

○ 북카페 비치도서 신간 (110책)

- 외래 관람객이 선호하는 책(중·영·일번역본) 비치·판매

* 채식주의자(영·중·일), 대장금(중), 엄마를 부탁해(영·중·일)

□ 도서관 운영

- 작은 도서관(집옥재) : 문화재청 경북공관리사무소 운영
- 북카페(팔우정) : 궁중 다과 및 도서판매 / 한국문화재단 운영
 - 외래 관광객에게 궁중 다과 및 인기도서 비치·판매로 휴식과 문화체험
- 상설전시 : “미니 장서각” 전시 / 국립중앙박물관·한국학중앙연구원(유물·전시) 협업
 - 장서각 소장 집옥재 유물(서책, 집옥재 도서목록집 등)과 고종 어진(御眞), 시권(試券) 등을 전시
- 인문강좌 : 연중 인문강좌 프로그램 개설, 운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운영
 - 장서각의 고문헌을 활용한 왕실문화 강좌를 개설, 인문정신 고양 및 우리문화 가치 확산
- 안내·홍보 : 키오스크 및 브로셔 등 비치
 - 문화재 집옥재에 대한 설명, 작은도서관으로 재탄생된 이야기, 주요 도서 안내 등 한·중·일어로 안내

□ 주요 행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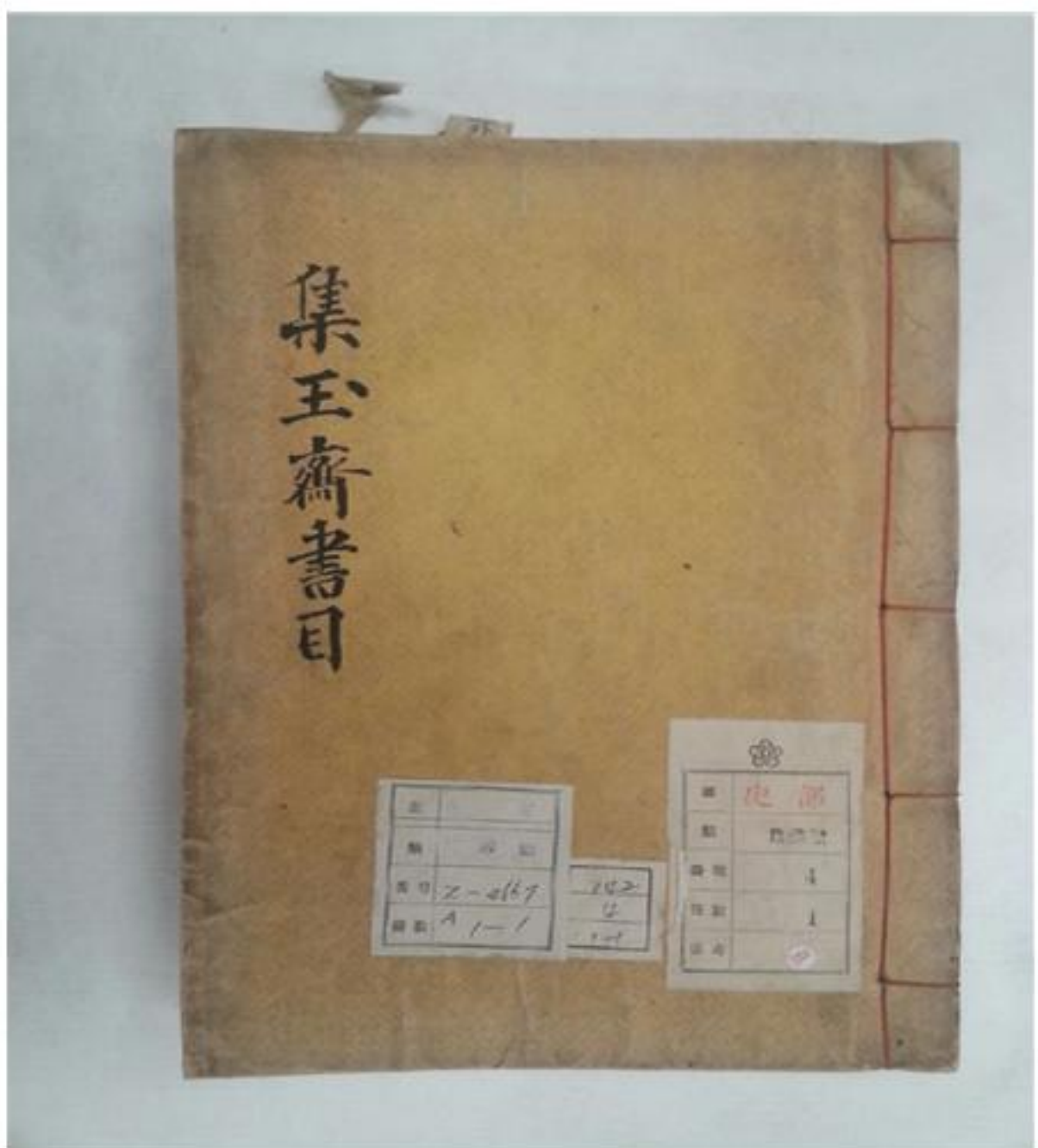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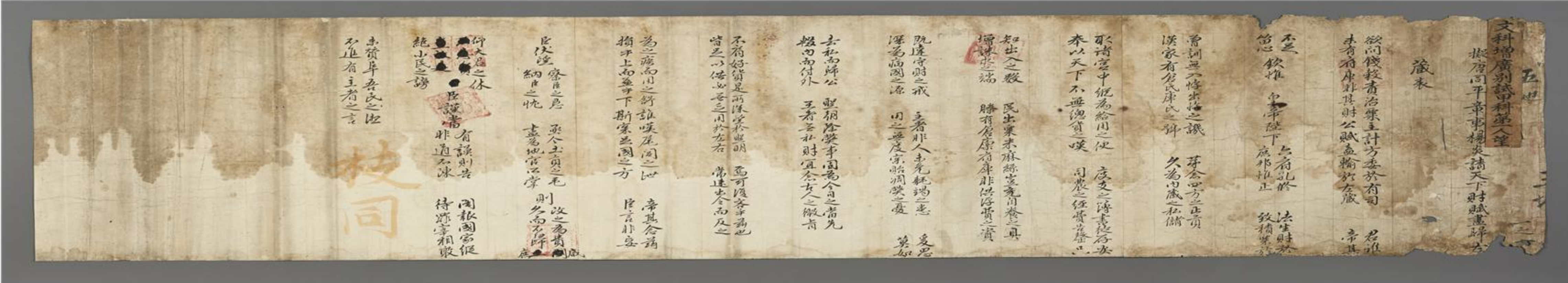
- (개관식) 축사, 기념사, 테이프 커팅* 후 작은도서관 관람(전시 포함)
 - ※ 테이프커팅 : 장관 등 총 13명 / * 자유학기제 참여학생, 순회사서, 독서감상문 수상자 등 국민대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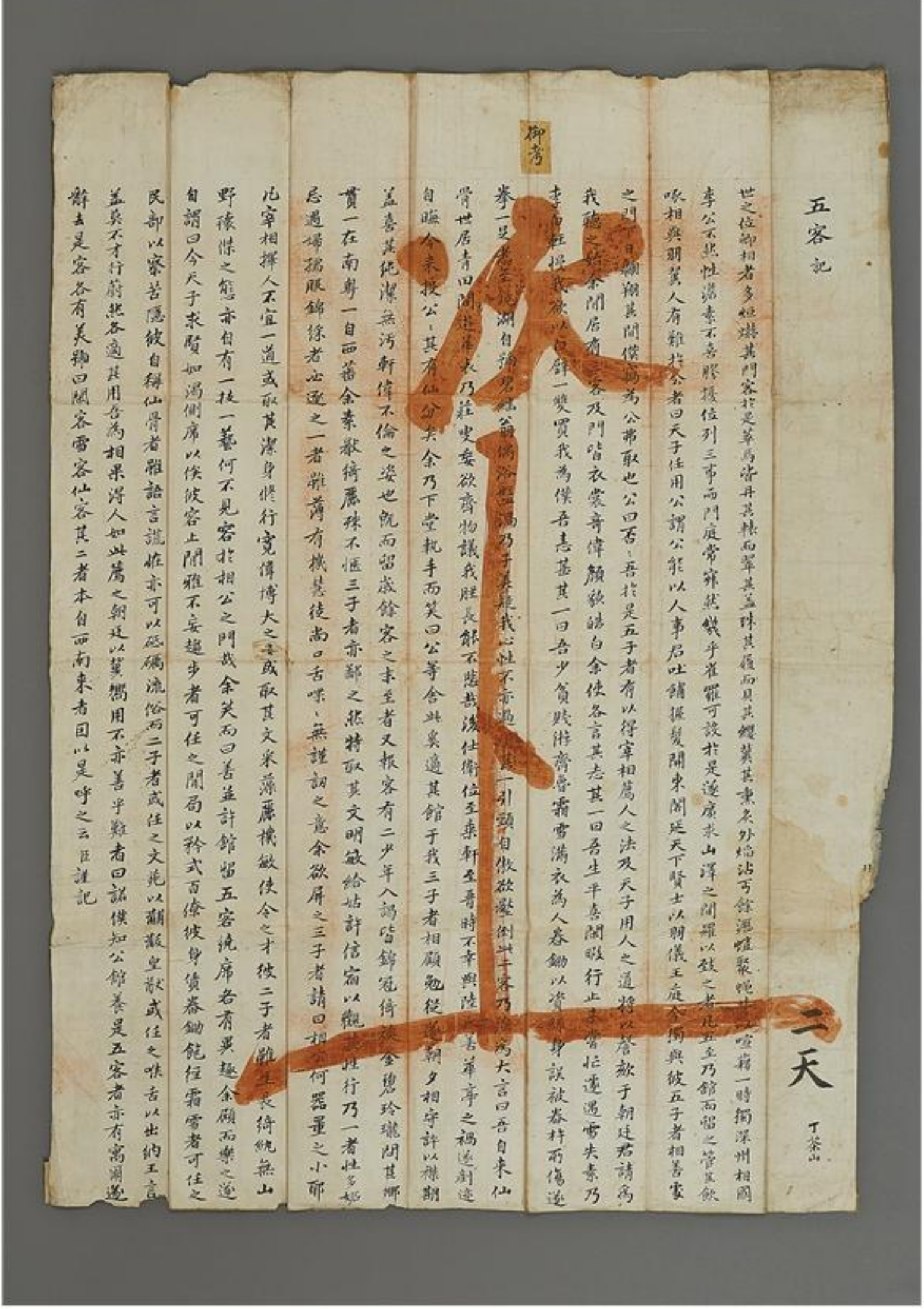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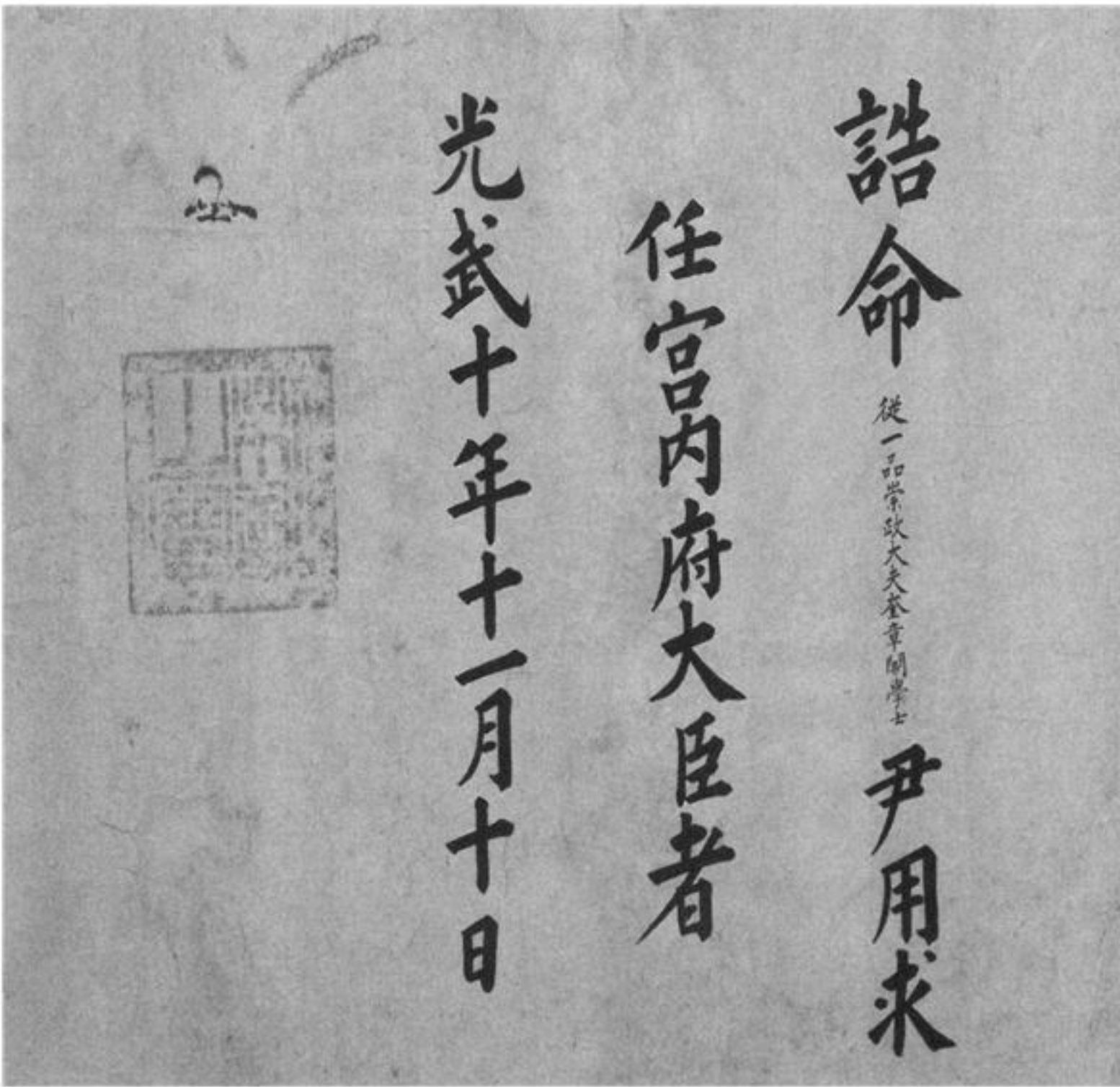
○ (문화행사) : 토크 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궁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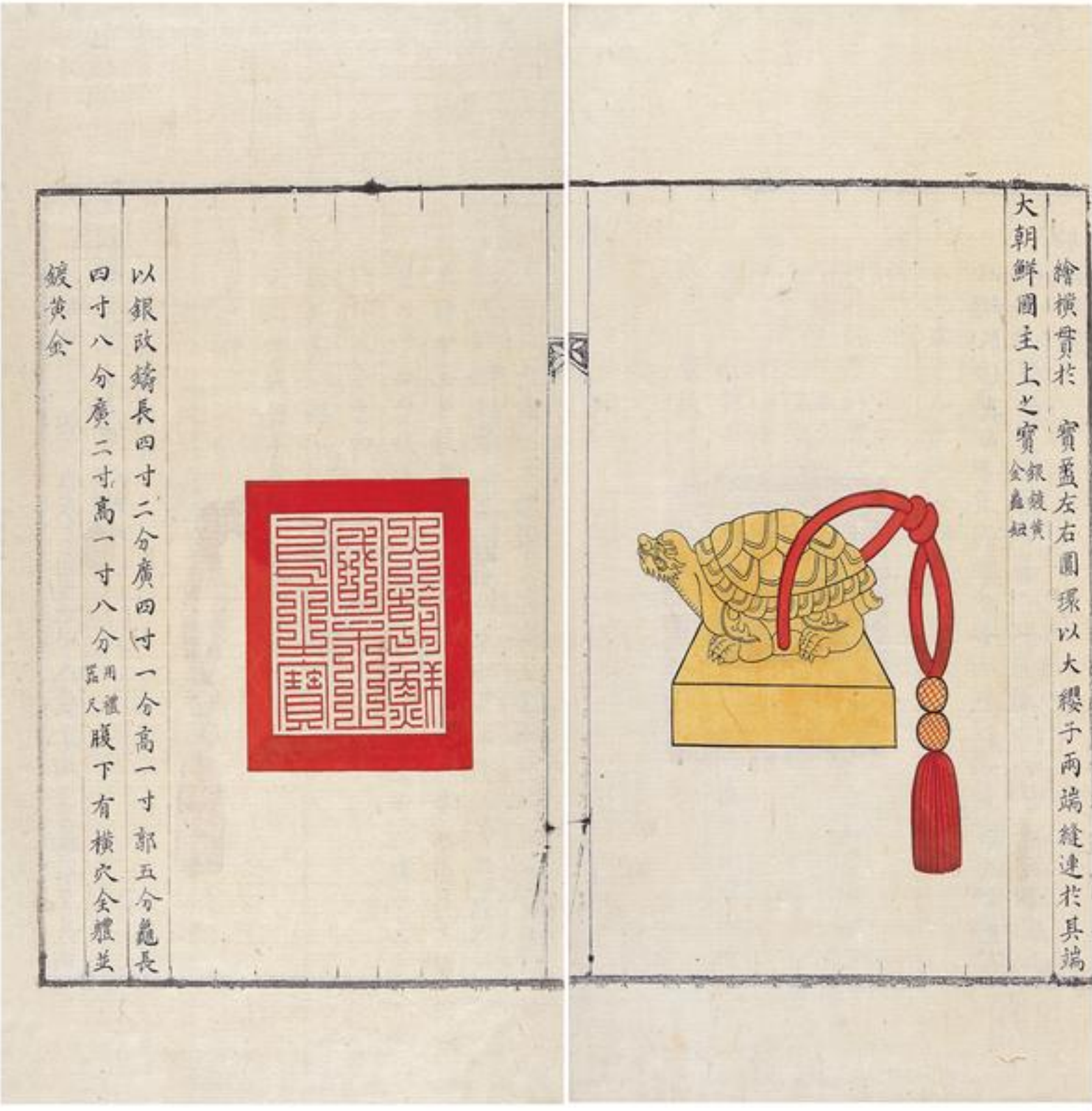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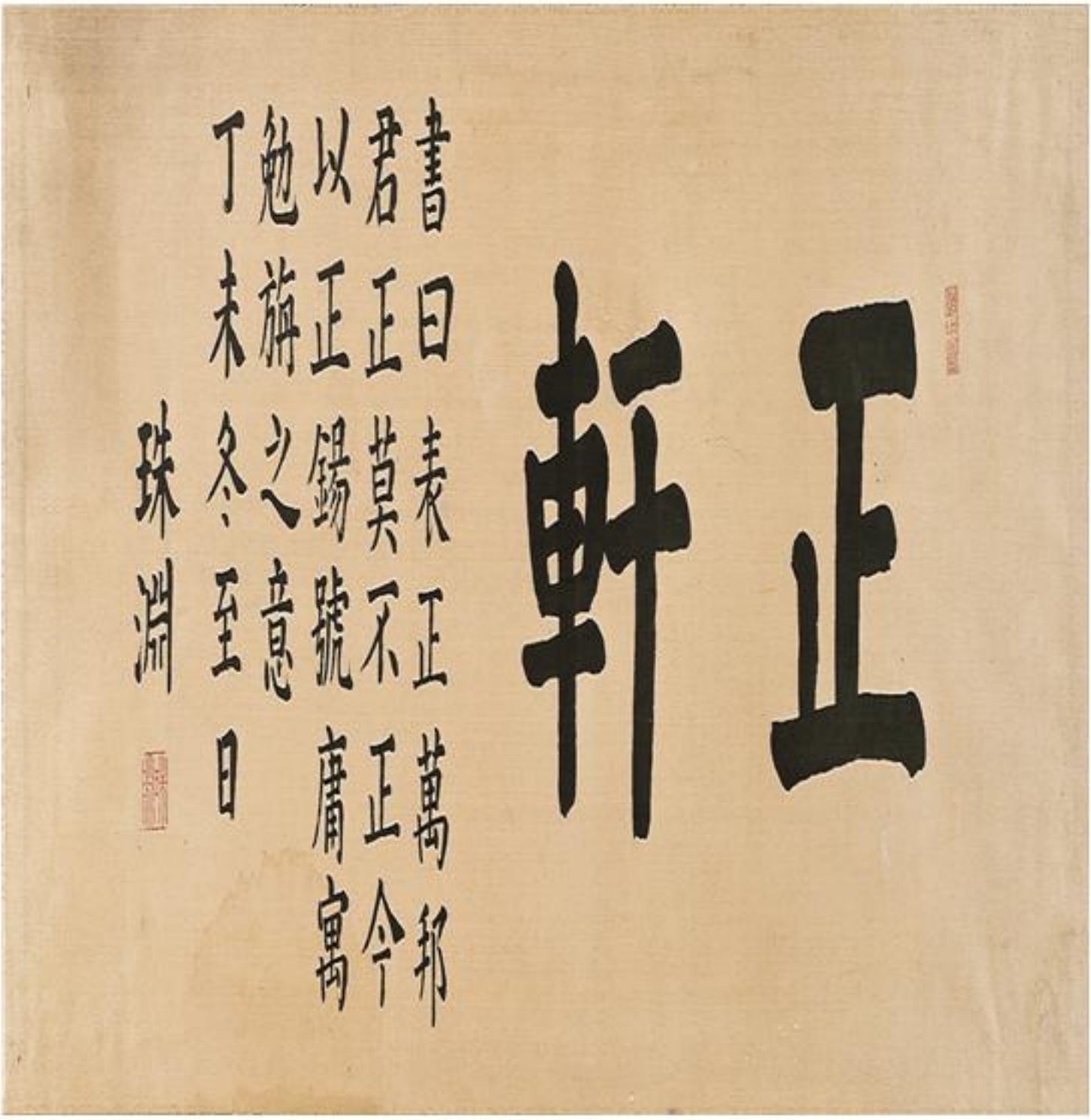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출연진	시간(분)
사회자 등장	○ 사회자 인사 및 행사소개	문소리	2'
시작전	- 집옥재 이야기	이배용	5'
<토크> 궁을 읽다	- 궁과 고종에 대한 짧은 단상	설민석	15'
	- 조선 시대의 책 읽기(격몽요결)	김원중	15'
	- 과거를 듣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읽다	문소리/설민석/김원중	15'
	- 궁중무용(태평성대)	공연팀	5'
	- 조선시대의 춤과 음악 이야기	문소리/ 민향숙	5'
	- 궁중무용(부채춤)	공연단	5'
마무리	○ 사회자 마무리 멘트	문소리	1'

※ 토크 콘서트 주요 출연진

구 분	성 명(직업)	주요경력
	문소리(31) (아나운서)	○고대 언론대학원 ○영국 ILA 졸업 ○현 SBS CNBC 앵커
	설민석(47) (역사강사)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 ○태건에듀 대표이사 ○EBS 역사강사,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최근 유튜브, 인강, TV 프로그램 등에서 재미있고 시사성 있는 강의로 대중에게 인기
	김원중(53) (교수)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장 ○문화융성위원회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위원 *저서 사기본기, 사기열전 I, 사기열전II 외
	민향숙(48) (교수)	○명지대 예술종합원(주임교수) ○한국무용가 ○“춤으로 걷는 세상”, “정재만처럼”, “민향숙의 우리 춤 이야기” 등 도서출판

유물명	관련 사진	비 고
고종어진 高宗 御眞		전 채용신 傳 蔡龍臣 (1850~1941), 20세기 초, 족자, 비단에 색, 118.5×68.8cm, 1981년 이흥근 기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익채용신蔡龍臣(1850~1941)이 그린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초상화다. 익선관翼善冠에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상징하는 황색 곤룡포를 입고 정면을 바라보며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용상龍床에 앉은 모습이다. 고종 황제의 얼굴은 둥글고 유순하며 섬세하고 선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무릎 위로 두 손을 올리고, 옥대를 가슴 위로 올렸으며 돛자리 모양을 수직으로 세우고 호패와 술 등을 크고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집옥재 도서목록 集玉齋 圖書目錄		1904년경, 1책, 필사, 28.2×19.5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고종황제의 서재인 집옥재에 있던 도서를 기록한 목록집이며, 1904년경 왕실의 사무를 맡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집옥재의 도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목록집이다. 목록에는 책마다 서명과 수량을 기입하였으며, 모두 39,817책이며, 실제로 있지만 목록에 빠진 769책의 숫자도 적어놓았다. 집옥재의 책들은 유학(儒學)의 고전과 관련된 책들이 가장 많았지만, 이외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문으로 번역한 서양의 신학문과 관련된 서적들이다. 『집옥재도서목록』은 고종이 1908년에 제실도서관(帝室圖書館)을 세우고자 도서를 조사하기 이전에 작성한 장서목록으로서 고종의 서재인 집옥재 장서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시권 (試券)		박세당 문과 시권(試券) 1660년(현종 1), 1장, 필사본, 73.0×281.0cm 과거답안지(시권)는 합격한 자에게만 돌려주었으며, 교지와 함께 가문의 영광스런 증표이다 동 시권은 조선후기의 학자인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이 1660년 11월 현종의 즉위(32세)를 축하하기 위해 시행된 증광문과 전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한 답안지로, 당시 유려한 필체(筆體), 오탈자의 수정, 수험관(受驗官)의 검열(檢閱) 표시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이때의 시제(試題)는 “당나라 동평장사(同平章事) 양염(楊炎)이 ‘천하의 재부(財富)를 전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청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박세당은 “백성이 풍족한 데 임금이 누구와 풍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부족한데 임금이 누구와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왕자(王者)에게는 사사로운 재물이 없으니 나라의 재정은 담당 관리에게 맡겨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정약용 친 시 시권 (丁若鏞親 試試券)		1790년(정조 14), 1장, 필사본, 119.3×87.5cm, 장서각(김영호 기탁) 다산 정약용(1762~1836)은 1789년(정조 13) 식년문과에 갑과 2인으로 급제한 후 정조14년(1790) 규장각 초계문신을 대상으로 한 정조의 친시(親試)에서 작성한 답안이며, 시권 전면에 주묵(朱墨)으로 적힌 ‘차상(次上)’이라는 글씨는 정조가 본 시권에 매긴 점수이고 상단에 부착된 ‘어고(御考)’라는 작은 첩지는 이러한 정황을 입증한다. 제출한 답안 제목은 ‘오객기(五客記)’이며, 심주(深州) 이상국(李相國)이 다섯 문객(門客)을 초치하여 응대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사람마다 지닌 장단점을 간파하여 그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것이 인재 등용의 핵심임을 피력하였다. 다섯 문객은 흰 꿩, 공작, 앵무새, 학, 백로이다. 정약용은 다양한 고사를 활용하여 다섯 종류의 새들을 의인화했고 문답(問答) 기법을 통해 작품에 생동감을 더하였다.
교지 (尹用求在 宮內府大 臣誥命)		1906년(光武 10) 11월 10일/ 高宗/ 尹用求/ 47.1×63.4cm/ 制誥之寶(11.0×11.0cm)/ 156. 고종이 윤용구(尹用求, 1853~1939)를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으로 임명한 고명이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윤용구는 규장각학사(奎章閣學士)에서 궁내부대신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온다. 윤용구의 본관은 해평(海平)이고 자는 주빈(周賓), 호는 석촌(石村)·해관(海觀) 등이 있다. 1871년(高宗 8) 문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대신에 십 수회 배명(拜命)받았지만 취임하지 않았고, 을사조약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고명(誥命)은 원래 황제가 제후나 5품 이상의 관원에게 주던 임명장이다.
어진도사 도감의궤 御眞圖寫 都監儀軌		1901~1903년(광무 7), 1책, 필사·채색, 31.5×25.5cm, UNESCO 세계기록유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901년(광무 5) 9월부터 1902년 5월까지 거행된 고종 황제의 초상화와 황태자 초상화의 제작 과정을 기록한 의궤로서 이는 고종이 평양에 지은 황실 이궁(離宮)인 풍경궁(豐慶宮)의 태극전과 중화전에 어진(御眞)과 예진(睿眞)을 각각 봉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인소 의궤 寶印所儀軌		1876년(고종 13), 1책, 필사·채색, 44.2×31.6cm, UNESCO 세계기록유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876년 보인 11점을 개조·보수·봉안하는 일에 관한 제 반사항을 기록한 의궤. 보인소는 옥새와 어보 및 보인을 주조·개조·수보하는 임무를 담당한 관서로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었다. 이 의궤에는 1876년 11월 8일부터 1887년 1월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였다. 도설과 함께 실린 보인의 종류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 등이 있다.
국서 國書		1888년(고종 25), 1장, 필사, 40.0×51.5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888년 6월에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의 취임(1887. 12. 3)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국서. 조선시대 국서는 일본이나 여진에 보내는 交隣文書의 일종이었으나 갑오개혁 이후 서구열강에 보내는 국왕의 친서나 조약문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국서는 1887년 12월 3일 상하 兩院의 추대에 따라 대위에 오른 프랑스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으로 보낸 국서의 副本이다. 당시 프랑스대통령은 사디 카르노였다. 본문의 ‘伯理璽天德’은 ‘President’의 차음 표기이다.
고종어제어필 高宗御製御筆		1907년(융희 1), 1장, 필사, 36.0×120.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907년(융희 1)에 고종(高宗)이 아들인 순종(純宗)에게 호(號)를 내려 주면서 쓴 글씨이다. 주연(珠淵)은 고종의 호이고, 정헌(正軒)은 순종의 호이다. 『서경』 「중궤지고」(仲虺之誥)에 “하늘이 왕에게 용기와 지혜를 내려 주고 의표를 단정히 하여 만방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天乃錫王勇智 表正萬邦]”에서 정(正)자를 취하였다.

□ **목 적**

- 장서각의 고문헌을 활용한 왕실문화 대중 강좌를 개설하여 인문정신의 고양과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강좌명**

- “궁궐에서 만나는 왕실문화”

□ **강의 내용**

- 1강. 왕실문화, 국격을 말하다 / 이배용(한중연 원장)
- 2강. 고종의 왕실도서관, 집옥재의 고문헌 / 김세은(장서각)
- 3강. 『선원록』과 왕실의 인맥 / 원창애(장서각)
- 4강. 『상방정례』로 본 왕과 왕비의 복식 / 이민주(장서각)
- 5강. 『종묘의궤』와 조선왕실의 제향 / 이 욱(장서각)
- 6강. ‘어제류’를 통해 본 국왕의 리더십 / 김학수(장서각)
- 7강. 『어진도사도감의궤』와 어진 제작 / 윤진영(장서각)
- 8강. 『진찬,진연의궤』속의 왕실음식 / 주영하(한국학대학원)
- 9강. 『열성어제』에 나타난 국왕의 문예관 / 안장리(장서각)
- 10강. 『영접도감의궤』로 본 대중외교 / 정은주(장서각)
- 11강. 조선왕실 의궤의 기록유산적 가치 / 박용만(장서각)